

# 전형성 벗어난 연기... '윤여정표' 캐릭터로 자리잡다

'생계형 배우'에서 한국 최초 오스카 수상까지...윤여정의 55년 연기 인생

포브스 "미나리"서 모두의 할머니 역...웃기고 가슴 아픈 것 이상 '화녀'로 파격적 스크린 데뷔...김수현 작가 만나 자신만의 색깔 입혀

영화 '미나리'에서 보편적이지만 변하지 않은 할머니 연기로 할리우드를 매료한 배우 윤여정은 데뷔 이후 55년 동안 9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같은 연배의 여배우들이 외모 등으로 스타덤에 올라 주연을 꿰차고, 나이가 들면 원숙미를 강조하는 과정을 겪었다면, 윤여정은 데뷔 초반부터 강렬한 작품에 도전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동년배 배우들과는 다른 색깔의 연기를 선보였다.

◇ 모두의 할머니. 전형적이지 않은 연기로 찬사 26일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은 윤여정은 '미나리'에서 미국 남부 아칸소주 시골로 이주한 딸 부부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건너간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다. 영화에서 손주 데이비드가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라고 외치는 대사가 윤여정표 순자를 대변한다.

포브스는 윤여정의 50여년 연기 경력을 소개하며 "독특한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오스카 레이스를 점치면서 "윤여정

의 역할은 엄청나게 웃기고 약간 가슴 아픈 것 이상"이라며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녀도 사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화녀'로 파격적인 스크린 데뷔 윤여정의 스크린 데뷔작은 말 그대로 '파격'이었다. 김기영 감독과 처음 호흡을 맞춘 '화녀'(1971)와 두 번째 작품인 '충녀'(1972)에서 윤여정은 주인공 남자를 유혹하는 가정부, 첩으로 들어간 집에서 극에 달한 히스테리를 부리는 역으로 당시 20대 여배우들과는 다른 행보를 걸었다.

드라마 '장희빈'(1971~1972)에서도 악녀 연기로 크게 주목받았다. 그의 악역 연기에 몰입한 시청자들의 미움을 받아 CF 모델에서 하차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혼과 도미, 이혼 등으로 공백기를 겪은 후 스크린으로 돌아온 그가 쌓아온 필모그래피는 독보적이다.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2003)을 시작으로 젊은 남자를 탐닉하거나 돈 앞에 한없이 냉정한 카리스마를 뽐내내는 범상치 않은 인물들 주로 맡



영화 '죽여주는 여자'

았다. 이후 '돈의 맛'(2012)에서는 재벌 집안의 탐욕스러운 안주인 금옥으로 분해 돈에 중독된 최상류층의 욕정, 집착을 연기했다. '죽여주는 여자'(2016)에서는 청자킷을 입고 종로 일대에서 가난한 노인들을 상대하는 박카스 할머니를 맡아 우리 사회의 그늘진 현실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후벼팠다.

◇ 김수현 작가와 오랜 인연... '윤여정표' 캐릭터 선보여

드라마에서는 좀 더 전형적인 할머니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 편이다. '군세이라 금순아'

(2005)에서 부모 잃은 손녀를 딸처럼 키운 할머니, '내 마음이 들리니'(2011)에서 돈도 배운 것도 남편도 없이 바보라 손가락질받는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우는 할머니 등이 그랬다.

그러나 윤여정은 스테레오타입의 역할도 최대한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면서 늘 원형보다는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편이다. 특히 원로 작가 김수현과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이런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 작가는 윤여정이 미국에서 조영남과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늑속기 편지'로 그를 위로했고,



50년만에 재개봉하는 영화 '화녀'

이후 후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각별했다. 윤여정이 미국에서 돌아와 재기할 수 있게 해준 작품도 김 작가의 '사랑이 뭐길래'(1992)였다. 윤여정은 이 작품에서 '한심애' 역을 맡아 본래 조용했지만, 시부모 밑에서 시동생이 다녔을 넘어가는 대가족 살림을 하며 수다스럽게 변한 모습과 딸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연합뉴스

##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극찬, 그래서 예술은 잔인하다"

솔직하고 재치 있는 '윤여정 어록'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에 인정 받아 만인이 나를 좋아하면 일찍 죽어요

배우 윤여정(74)은 연기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재치 넘치는 언변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 윤여정의 화법은 솔직하다 못해 직설적이다. 이른바 '돌직구'를 던진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할 말은 하지만 품위를 지키는 그의 화법에 젊은 층이 더 환호한다. 56년 차 배우이자 70대 중반 어른이지만, 그는 무게를 잡지 않는다. 자신을 "진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윤여정은 양념을 곁들여 적절할 유머로 분위기를 띄운다.

해외 각종 시상식에서는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관중을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고, 예능과 인터뷰에서는 삶의 경험을 녹여낸 담백한 이야기로 공감을 산다. '미나리'가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에서는 "사실 이 영화 안 하고 싶었다.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라며 쉽지 않은 독립영화 현장을 드러냈고, 관객들은 웃음으로 공감을 표했다.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수상한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는 "고상한 체한다"(snobbish)고 알려진 영국인들이 좋은 배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고 영광"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정극을

쫓던 영국인들은 이 대담한 소감에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윤여정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인생에 관한 담백한 고찰과 위트가 돋보이는 말을 여럿 남겼다. 특히 2014년 tvN '꽃보다 누나'를 계기로 스타 PD 나영석 사단의 예능에 꾸준히 출연 중인 그가 프로그램에서 남긴 말들은 '윤여정 어록'으로 불린다.

연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는 늘 솔직했다. 2009년 MBC '무릎팍도사'에 나와 "나는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남들은 극찬하더라. 그래서 예술은 잔인하다.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가장 잘한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도 회자할 정도다.

배우 윤여정의 캐릭터는 확고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 극명했다. 70대의 나이에 예능 프로그램을 접수한 그에게 요즘 젊은 세대는 환호를 보내지만, '이혼한 여배우'에 대한 대중의 편견이 훨씬 확고했을 때는 비호감이 훨씬 강했다.

윤여정은 "어떻게 만인이 나를 좋아해, 일찍 죽어요, 그럼"(2013년 SBS라디오 '최화정의 파워타임'), "윤여정은 이혼녀야. TV에 나와서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저를 아주 좋아해 주세요. 이상하죠. 그게 인간이예요"(2021년 뉴욕타임스 인터뷰)라고 받아친다.

/연합뉴스

## 임상수 감독 "젊은 감각에 자유롭고 위트 넘치는 사람"

배우 최우식 "바라고 또 바랐던 일, 보면서 울컥했다"

감독·PD·후배가 말하는 윤여정

'바람난 가족'(2003)으로 윤여정의 성공적인 스크린 복귀를 이끈 이후 많은 작품을 함께 하며 '절친'이 된 임상수 감독은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에 "자유롭고 젊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이뤄낸, 부러울 정도의 짜릿한 성공"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임 감독은 "'미나리'는 초저예산 영화라 매니저도 못 데려간 것으로 안다. 모두가 고생한다고 했는데, 윤 선생님이 자유롭고 젊으니까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감독의 소개로 윤여정과 인연을 맺은 이재용 감독은 "늘 무슨 작업이든 합틀게 하신다"고 전했다. 매년 새로운 역할, 장르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이 감독과는 영화계 이야기를 페이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여배우들'(2009) 이후 '뒷담화:감독이 미쳤어요'(2012), 종로 일대에서 가난한 노인들을 상대하는 박카스 할머니를 다룬 '죽여주는 여자'(2016)로 함께 작업했다.

이 감독은 '죽여주는 여자' 촬영 당시 윤여정이 뒷담화 여관방 등 열악한 촬영 현장은 물론 성매매의 적나라한 장면이나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에 심적으로 버거워했지만, 결과에는 만족했다고 전했다.

홍상수 감독 영화의 프로듀서로 일한 김초희 감

독은 '하하하'로 윤여정과 인연을 맺은 이후 '산나물 처녀'(2016), '찬실이는 복도 많지'(2019) 두 편의 영화를 찍었다.

2014년 '꽃보다 누나' 이후 '윤식당' 시리즈, '윤스테이' 등을 통해 윤여정의 인간적 매력을 널리 알린 나영석 CJ ENM PD는 "선생님께서 수상 소감 등 공식에서 보여주시는 위트 넘치는 발언들은 평소 아이덴티티를 잘 반영한다"며 "워낙 앞과 뒤가 똑같은 분이고, 방송에서도 그 아이덴티티 그대로 하신다"고 전했다.

한편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받자 후배 배우들도 저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배우 김혜수는 윤여정 수상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윤여정이 과거 tvN 예능 '꽃보다 누나'에서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이 처음이야"라고 했던 대사를 인용하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썼다.

tvN 예능 '윤스테이'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호흡을 보여줬던 최우식도 소속사 매니저먼트를 통해 "선생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으로 지켜보는 동안에도 모두가 가장 바라고 또 바랐던 일이었는데 보면서 울컥했다"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